4가지 테마별로 분류한 서울 여름 녹음길 주요 추천지

1.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녹음길

□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먹거리와 함께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녹음길을 걸어보고 싶다면 삼청로, 효자로, 돈화문로, 정동길, 삼청공원을 추천한다.

○ **삼청로**	〈삼청로〉는 2010년 일반인에게 개방된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에 위치한 삼청로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도 관람할 수 있다. 삼청공원 쪽으로 향하면 화랑, 맛집이 즐비한 삼청동 카페골목이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길이다.
○ **효자로**	경복궁 입구에서 시작하는 효자로는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고즈넉한 길로, 주변의 국립고궁박물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뿐 아니라 어린이, 성인, 가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사전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좋다.
○ **정동길**	〈정동길〉은 시내에서 아름다운 가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정동길의 캐나다대사관 앞에는 550년 된 회화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캐나다대사관 신축과 관련해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이 나무는 5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위용을 뽐내듯 멋진 자태를 하고 있으니, 정동길을 걷고자 한다면 주의 깊게 볼만 하다.

2.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녹음길

□ 늦은 밤까지 식지 않는 열기로 고생을 한다면 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함께 도심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 남산 순환길, 북악스카이웨이와 석촌호수,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 **남산공원 남측순환로**	〈남산공원 남측순환로〉는 아름드리 왕벚나무 터널이 조성되어 도심 한복판이지만 마치 속 숲 속에 온 듯한 색다른 경치를 느낄 수 있다. 남측순환로를 통해 N서울타워에 오르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야경이 펼쳐진다.
○ **북악산책로**	〈북악산책로〉는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아름드리 나무가 펼쳐지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로, 나무가 주는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효자로와 세검정삼거리를 시작으로 북악스카이산책로를 통해 팔각정에 도달할 수 있으며, 팔각정은 높은 고도의 영향으로 기온이 1~2℃ 낮아 한여름 밤에 가기에 그만이다.
○ 석촌호수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내 녹음 산책길을 걸으면서 잠실타워의 웅장한 야경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화려한 도심속 야경을 보는 것도 즐거운 피서거리이다.

3. 물이 있어 시원한 녹음길

□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도심 속 녹음을 만끽하는 것도 여름의 또 다른 즐거움. 특히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서울숲, 월드컵공원, 세검정삼거리, 강동구 고덕이마트 앞 등이 녹음과 물을 즐길 수 있다.

○ 서울숲	〈서울숲〉은 2005년에 개원한 서울숲의 바닥분수는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유명하다. 서울숲은 물놀이와 함께 메타세콰이아 녹음길을 산책하며 아이들과 함께 곤충식물원, 나비정원을 방문하여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장소이다.
○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의 강변북로변 메타세콰이어길, 난지천공원 외곽 차폐림 등의 녹음길과 함께 별자리광장 바닥분수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일 뿐 아니라,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난지연못 분수 역시 가족이나 연인들의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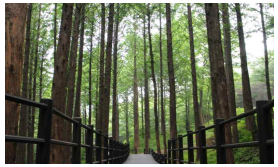
4. 특색 있는 나무가 있는 녹음길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이외의 색다른 나무들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면 월드컵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서남환경공원, 화곡로, 태봉로(메타세콰이아), 관악로(자작나무)를 가보자.

○ 겨울연가로 유명해진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아 숲길이 가보고 싶다면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월드컵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서남환경공원〉이 그보다 멋진 메타세콰이아 숲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월드컵공원에선 하늘공원 강변북로변의 메타세콰이아길과 희망의 숲길에서 메타세콰이어를 만날 수 있다. 희망의 숲길은 오솔길에서 하늘공원 능선길로 들어서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산책로로 하늘공원 중턱까지 갈 수 있다.

월드컵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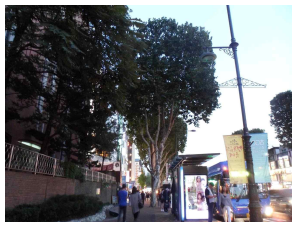


안산도시자연공원

서남환경공원

○ 가로변에서도 메타세콰이아 길을 볼 수 있다. 양재천변을 따라 식재된 메타세콰이어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수직적인 가로수로 녹음벽에 둘러쌓인 착각을 일으킨다

○ 젊음의 거리 〈대학로〉, 〈관악구의 남부순환로〉, 〈신림고등학교 가로변의 문성로〉는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기존 둥근형에서 사각으로 전지하여 특색 있는 가로로 조성되어 있다.



대학로

관악구 남부순환로

문성로

2019년 서울 여름 녹음길 사진자료

▲중구 정동길(은행나무)

▲용산구 소월길(은행나무, 복자기)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산책로(대왕참나무)

▲도봉구 창일중학교 가로변(느티나무)

▲중랑구 복개천 녹지대(느티나무, 단풍나무)

▲서대문구 안산숲길(느티나무)

▲양천구 목동동로1길(느티나무)

▲마포구 경의선숲길(대왕참나무, 중국단풍)

▲영등포구 은행로 사잇길(단풍나무, 복자기)

▲노원구 중랑천 제방(은행나무, 벚나무)

▲서초구 길마중길(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송파구 송파나루공원(벚나무)